

#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에너지가격 하향세·국민부담 고려”

##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5.0원 유지 강경성 “국민부담 고려, 쉽지 않아”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고물가에도 40% 가까운 전기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되찾자,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 당 5.0원으로 결정,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적용해 산출한다. 실적연료비란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 등의 무역통계가격 평균가격을 말한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6일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며, 산업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친다. 이후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전기요금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다 보니, 최근 이를 결정할 때마다 한번 씩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한 달여 지연됐던 앞선 전기요금 결정 때와 달리 이번에는 관계 부처 등 사이에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적자 44조원을 기록했다. 여전히 적자를 해소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이은 인상으로 발생한 국민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6.9원, 3분기 5원, 4분기 7.4원에 이어 올해 1분기 13.1원, 2분기

8월 등 연이어 인상하면서 40원이 넘는 수준이자 약 39% 인상됐다. 올해 인상분은 지난해 말 산업부와 한전이 추산한 인상요인 51.6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연이은 인상과 고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3분기에도 추가 인상은 것은 부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앞서 추산한 인상요인이 달라졌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강경성 2차관은 지난 14일 취재진에게 “그동안 정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올랐더라”며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 자료를 살펴봐야겠지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동결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 중”이라며 “약 51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한 당시의 예측과 지금 예측은 달라질 수 있다. 당시에는 맞는 수치였지만, 지금은 다시 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는 선물가격으로 예측하는데 현재 약 3개월 정도 지난 상태라보니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한전이 사오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뒤바뀔 것 같다. 예측이란 게 항상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 있어 추이를 살피는 중”이라고 했다.

변영일기자

## 신세계까사, ‘홈술·홈바’ 기획판매...“최대 60% 가격 할인”



### 군닷컴서 내달 7일까지 진행

신세계그룹의 리빙·라이프스타일 기업 신세계까사는 홈술·홈바 인기에 힘입어 내달 7일까지 라이프스타일 쇼핑 플랫폼 ‘군닷컴’에서 ‘더 있어 보이는 홈술·홈바’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까사는 홈바를 완성시켜 줄 다양한 인테리어 아이템을 제안하고 할인 판매한다. 빈토리오, 나흐트만, 엘에스에이 등 술의 향과 풍미를 높여 줄 글로벌 글라스 브랜드의 술잔이 최대 57% 할인 판매된다. 위스키의 잔향을 오래 즐길 수 있는 글라스잔부터 북북 터지는 탄산을 감상할 수 있는 샴페인잔, 부드럽게

스월링(swirling·소용돌이)하기 좋은 와인잔 등 주류에 맞는 다양한 전용 술잔이 선보인다.

홈바 아이템과 라운지 바에 와 있는 듯한 안주 플레이팅을 연출할 수 있는 테이블웨어도 최대 5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까사미아, 알레시, 모노프, 페블리 등의 와인 디캔더, 와인랙, 위스키 스톤, 얼음 버킷, 트레이, 치즈보드, 플레이팅 보드 등이 준비됐다.

조명과 음향기기, 수납가구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레드로한 감성의 LP턴테이블과 풍부한 음향을 내 줄 스피커, 감각적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 고급스러운 와인 수납장 등이다.

이슬비기자



## 다이슨, ‘물청소 기능’ 탑재 청소기 최초 출시

글로벌 기업 다이슨이 한국의 마룻바닥 생활에 알맞는 물걸레 청소와 동일한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공개했다. 다이슨이 물청소 기능을 갖춘 청소기를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이슨은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신제품 론칭 간담회를 열고 ‘다이슨 V12s 디테트 슬림 서브마린’을 국내에 출시했다. 무선 청소기 클리너 헤드와 함께 물청소 헤드, 머리카락과 반려동물 털 등을 영키없이 제거할 수 있는 헤어 스크류 툴을 제공한다.

다이슨은 매년 글로벌 먼지 연구소를 통해 글로벌 대기 연구를 포함한 거주 환경과 청소 습관에 변화를 연구 중이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 시작된 마룻바닥 사용률이 미국, 유럽 등지로 퍼지며 물청소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연구에 돌입해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다이슨 청소기 최초로 물청소 기능을 탑재했다. 물 청소 헤드를 적용하면 물을 분사해 바닥의 액체와 오염 물질, 찌든 때를 닦아낸다.

이를 위해 다이슨은 영국과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엔지니어들은 8개의 분사구를 설계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한 8개의 분사구는 1분마다 18ml의 물을 정확하게 공급하고 물리는 900번 회전을 통해 바닥에 물기를 과도하게 남기지 않고 닦아낸다.

찰리파크 다이슨 무선청소기 사업부 R&D 총괄 부사장은 “아시아 수요 충족을 위해 출발전 제품”이라면서도 “물걸레 청소기에 대한 선호도가 아시아에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룻바닥 사용률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물걸레 청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글로벌 현상”이라고 말했다.

신제품의 물청소 헤드를 적용하면 110ml(약 30평) 정도의 면적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다. 360ml의 오수통을 탑재해 먼지와 이물질이 다시 바닥에 배출되지 않도록 추출관을 통해 물기와 오염물질을 따로 분리하도록 했다.

다이슨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물청소기에 대해 관리의 불편함과 무게로 인한 기동성 약화를 문제점으로 꼽은 것에 착안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물 청소 헤드에서 닦아낸 물기와 오염물질은 별도의 오수통에 모이기 때문에 쉽게 비울 수 있다. 청소기 헤드 내 롤러를 비롯한 물탱크 등 모든 부품을 분리해 직접 흐르는 물로 닦아낼 수 있다.

물 청소 헤드 무게 역시 1.3kg으로 기동성을 높였다. 가구 밑이나 낮은 구석, 모서리 등까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찰리 파크 부사장은 “기존 물 청소 방식은 기동성과 유지 관리가 문제점인데 다이슨은 이를 해결해 차별화 했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 5월 생산자물가가 2개월 째 하락

21일 서울시에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4(2015년 100 기준)로 전월대비 0.3%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축산물(3.1%)과 수산물(1.2%), 농산물(0.3%)이 상승하며 농림축산물은 전월대비 1.5% 올랐다. 하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6.3%), 화학제품(-1.1%), 제1차금속제품(-0.8%) 등이 내리며 공산품은 전월대비 0.8% 하락했다.

## 동원 더반찬&, 고객 감사전 열어...최대 50% 할인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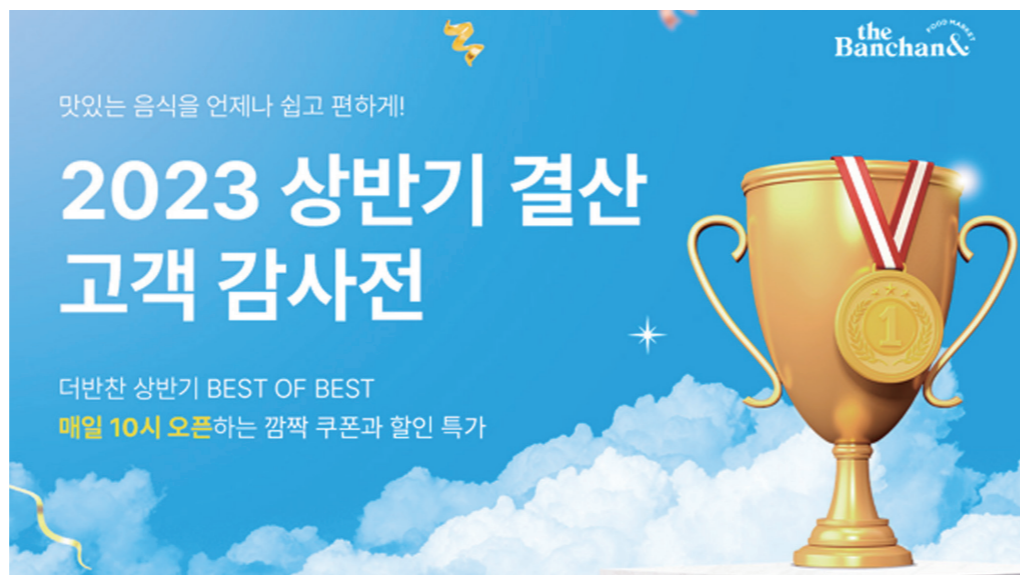
### 인기 간편식 500여종으로 구성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집밥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은 올해 상반기 간편식 히트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2023 상반기 결산 고객 감사전’을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반찬과 국·탕·찌개·일품요리·정육·수산물·샐러드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인기 간편식 500여종으로 구성했다. 50% 할인 특가 상품을 매일 선착순 오전 10시부터 한정 수량 판매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5000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제품명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정답을 맞춘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더반찬& 포인트 1만원을 지급한다.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고 자연 재료만으로 만든 ‘클린라벨’ 제품들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한다. 또 소시지야채볶음·꽃맛샐러드 등 반찬 8종을 각각 3900원에, 국·탕·찌개 4종



은 각각 4900원에 선보인다.

더반찬& 관계자는 “올해 더반찬&을 찾아주신 많은 소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베스트 셀러 제품들을 엄선했다”며 “앞으로

도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식품 전문 온라인로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프레시지, ‘벨리곰’ 캐릭터 협업 빵피버거 출시

간편식 퍼블리싱 기업 프레시지는 캐릭터 ‘벨리곰’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투 인 원(2 in 1) 빵피버거’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벨리곰은 145만 이상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팬덤을 보유하며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게 인기를 끄는 캐릭터다.

신제품은 불고기와 에그마요로 구성된 두 가지 맛 버거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불고기 소스를 얹은 패티에 토마토·로메인으로 맛을 낸 불고기 버거와 에그 샐러드·스리라차 마요가 어우러진 에그마요 버거를 담았다.

이번 제품은 벨리곰 리무버블 스티커를 1개 월 한정정으로 제공한다. 출시 제품은 이날부터 GS25에서 단독으로 판매한다.

프레시지 관계자는 “MZ 소비자의 캐릭터 상품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면서 인기 캐릭터 벨리곰과의 콜라보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 IP 협업 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에게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